

월드IT쇼, 국제 LED 엑스포&FPD 코리아

첨단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LED · 광전자 · IT 융합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국내 최대 빛의 향연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 LED 엑스포와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국내 IT 통합형 전문 전시회인 월드IT쇼가 개최됐다. ‘LED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0일부터 나흘간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 LED 엑스포와 ‘녹색 IT를 위한 신융합 기술’을 주제로 지난 6월 17일부터 나흘간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는 첨단 기술의 경연장을 발불케함은 물론 각각 2억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의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박지연 기자

[국제 LED 엑스포]

전년보다 참가업체 20% 늘어, 첨단 LED 기술의 희망찬 미래 조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LED 엑스포 & FPD 코리아 2009(이하 LED엑스포)’가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삼성LED·금호전기·킹브라이트 등 관련 국내외 업체들이 참가해 조명과 칩·모듈·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다채로운 LED 관련 제품들을 선보였다. 올해는 LED 관련 대기업부터 방열장치·형광체 등 부품소재 전문업체들까지 대거 참가해 국내 LED 산업의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는 평이다.

전시 기간 중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 LED 세미나, 제품설명회 등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개최됐다.

약 1만6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2억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새롭게 출범한 삼성LED를 비롯, 금호전기, 태원전기산업, 우리조명, 한미반도체, 루미마이크로, 넥슨, 킹브라이트, EFD, 와이즈파워, 한삼시스템, 프로텍 등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기업 230여 개 사,

500여 부스가 참가하는등 지난해보다 규모면에서 더욱 커진 느낌이었다.

전시품목은 LED 조명에서부터 칩, 패키지, 모듈, 디스플레이, OLED, 부품, 장비 등으로, 관련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제품들이 총망라되어 기업의 신제품 공개와 기술 및 정보 교류, 수출 판로확보의 장이 되었다.

지난 4월 공식 출범 후 전시회 참가가 처음인 삼성LED는 다양한 분야의 LED 제품군을 선보였다. 162㎡ 규모의 부스 전체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LED 광원의 ‘LED TV’용 패널과 냉음극형광램프(CCFL) 광원의 LCD TV용 패널의 화질·소비전력을 직접 비교 시연할 수 있도록 꾸몄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전시회에는 LED조명 관련 부품·소재 업체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코아셈·티티엠·폴리네트웍 등 방열 전문업체들은 그 동안 LED 조명용으로 개발해온 히트싱크와 방열테이프 등을 대거 선보였다. LED 조명은 빛과 함께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방열 장치의 품질은 제품의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테라칩스와 동운아나텍은 각각 독자 프로토타입을 내장한 컬러 LED 구동칩과 조명용 LED의 핵심 구동칩 5종을 선보였다.

‘LED 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각종 부대 행사 및 세미나에는 산업 전반에 걸친 최고 권위의 연사들이 초청됐다. 우선 학술대회에는 ‘블루 LED’의 창시자인 나카무라 슈지 미국 산타바바라대

교수와 모토코 이시이 LED 조명 디자이너 등 해외 유명 인사들이 참석, LED 시장·기술 동향을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행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LED 산업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월드IT쇼]

2회째를 맞아 국내 IT 통합형 전문 전시회로 힘찬 '발걸음'

첨단 IT 및 광전자기기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WIS(World IT Show) 2009'가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코엑스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올해로 제2회째를 맞은 'WIS(World IT Show) 2009'은 국내 IT 통합형 전문 전시회로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비롯하여 30여 개국 500여개 기업, 1240개 부스가 참가하여 다양한 종류의 산업간 컨버전스 솔루션과 신제품을 선보였다. '녹색 IT를 위한 신융합 기술'을 메인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관련 제품과 기술의 각축장이 되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시회 기간 동안 100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방문해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총 736㎡ 규모의 전시 공간을 대서양홀 중앙에 마련해 TV, 모니터, 휴대폰, 프린터, PC, MP3 플레이어, 홈시어터 등 다양한 IT·AV 제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 'B2B 솔루션', '디자인'이란 주제별 테마존을 전체 규모의 절반가량 구성했다. 친환경을 주제로 한 'Eco' 코너에서는 삼성전자의 녹색경영 활동 소개와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출품했는데 태양광 충전 휴대폰, 바이오 플라스틱을 적용한 휴대폰 등 친환경 제품이 이목을 끌었다.

'B2B 솔루션' 코너에서는 사무실,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등 실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 삼성전자의 통합 솔루션 기술력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 줬다. 또 '디자인' 코너에서는 TV, 모니터, AV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크리스탈 로즈 디자인의 기술력과 세계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으로 탄생된 휴대폰, 노트북 PC 등을 함께 선보였다.

LG전자는 630㎡ 규모의 전시부스를 마련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LG'를 주제로 최신 휴대폰 제품과 LCD·PDP TV, 노트북, 홈시어터, 모니터 등 다양한 IT 및 영상·음향 가전제품 총 270여종을 출품했다. 특



▶ 삼성LED는 162㎡ 규모의 부스 전체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LED 광원의 LED TV 용 패널과 냉음극형광램프(CCFL) 광원의 LCD TV용 패널의 화질·소비전력을 직접 비교 시연할 수 있도록 꾸몄다.



▶ LED 테스트 장비를 선보인 존테크



▶ LED 마킹 시스템을 선보인 이오테크닉스



▶ 모던하이테크에서는 광학설계프로그램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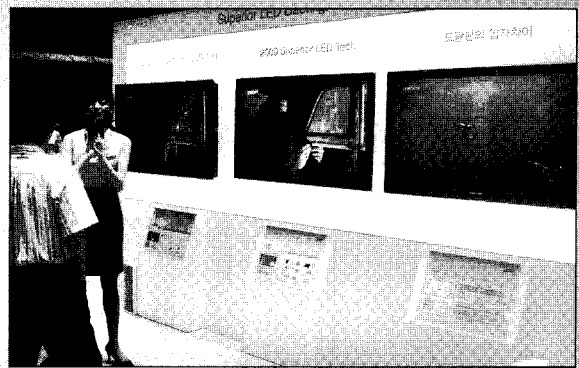
히 올해는 '에코존(Eco Zone)'을 별도로 마련, 태양광을 이용해 충전 가능한 휴대폰, 친환경 자연 소재(옥수수 전분)를 사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폰 및 기존 대비 최대 70% 가량 전기로 절감이 가능한 LED TV 등을 전시해 친환경 선도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또한 국내 최초 240Hz LED TV로 직하방식인 LH 90시리즈와 세계 최초로 무압축 전송방식을 적용한 '무선 LCD TV' LH 80시리즈 등을 출품해 기술력을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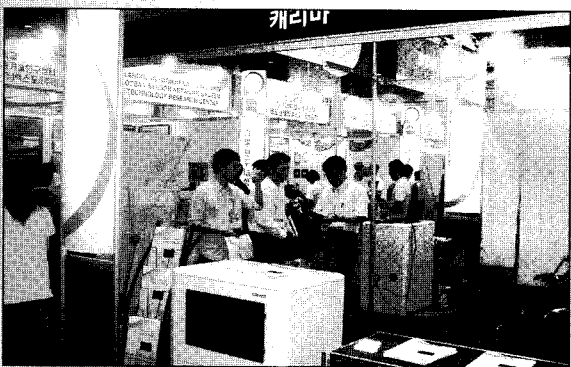
▶첨단 IT 및 광전자기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WIS(World IT Show) 2009'가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코엑스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KT와 현대차는 휴대폰을 이용해 차량을 원격 진단 제어할 수 있는 '쇼(SHOW) 현대차 모바일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밝혔으며, SK텔레콤도 '그린 모바일, 그린 어스' 콘셉트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선보이는 한편 중고 휴대폰 수거 행사도 벌였다.

SK텔레콤은 또 국내 이동통신 역사를 보여주는 테마관을 별도 운영해 '카폰' 등 1980년대 초창기 제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40Hz LCD TV(LCD 750) 등 4년 연속 세계 TV 1위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제품을 대거 출품했다.



▶올해 활발히 산업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 캐리마에서는 광조형기를 선보였다.



▶디지털카메라 방수케이스 등을 선보인 디카팩



▶LG전자는 올해 전략제품인 아레나폰 및 프리라폰 두번째 모델, 쿠키 폰, 롤리팝폰 등 최신 휴대폰을 전면에서 전시했다.



▶포토프레임 프린터 등을 선보인 프리닉스